

# 21세기 초일류기업, 현대전자산업(주)

첨단 TFT-LCD, 정보통신 장비, 자동차용 전자부품 등 미래 지향적인 첨단기술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현대 전자는 직원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남다르다. 첨단 미래기술을 선도해 나갈 우수 인재의 육성과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수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기업이념 정립을 위한 정신교육을 위주로는 전통적인 집합식 교육에서 탈피, 인터넷상에 구축된 '사이버' 교육공간을 통해 외부 전문교육기관의 연계하에 다양하고 전문적인 '열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동에서부터 강남역까지 벤처거리로 불리 는 테헤란로는 첨단산업을 하는 신생기업부터 전문 대기업까지 모두 밀집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전자다. 현대전자는 얼마전 LG반도체와의 빌드문제로 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거대 기업으로 새롭게 재탄생한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다.

올해 18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현대전자는 83년 2월에 창립됐다.

건설, 중공업, 자동차산업에만 전념해 오던 현대가 83년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산업전자 등의 첨단 전자산업을 하겠다고 선포하자 일간에서는 현대를 놓고 회의적인 말들이 많았다고들 한다. 그러나 지금의 현대전자산업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전자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세계 유수의 전자전문

기업들을 인수하여 흑자 달성 및 해외증시 상장, 해외기업으로의 성공적인 매각 등을 통해 뛰어난 경영능력을 발휘해 왔던 것이다.

특히, 현대전자산업은 창립 이래 거의 매년 1백%를 상회하는 기록적인 성장세를 이어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세와 16년간 '노사무분규'의 신화 이룩, '99년 10월에 현대반도체와의 통합법인의 공식 출범을 바탕으로, 향후 2천년대는 반도체 업계를 이끌어나갈 세계 초우량기업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한 '기술현대' 우뚝

지속적이고 과감한 신기술 개발 투자로 반도체 메모리분야의 주공급자로서 전세계 전자·정보산업 발전에 기여한 현대전자는 해외에 현지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 83년 7월, 미국 현지공장을 착공, 이듬해인 84년 10월에 5인치 웨이퍼 기준 년 5만



매의 가공능력을 갖춘 시설을 완공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16K SRAM · 128KROM · 1K EEPROM 등과 8비트 및 16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발에 착수, 84년 6월 개발에 완료하고 국내로 기술을 이전하는 동시에 생산에 들어 갔다. 이때 현대전자가 개발한 공정기술은 CMOS 기술로서 당시로서는 최신의 공정기술이었고 이를 계기로 끊임없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다.

1992년 64M D램 개발, 1995년 256M 싱크로너스 D램 개발, 1997년 1G싱크로너스 D램 개발에 이어 98년에 16M D램 회로기술개발은 세계 최초 라는 점에서 업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당시 미국법인의 역할은 첨단기술의 개발 및 관련 제품의 생산과 판매, 최신 정보기술 수집, 개발한 기술 및 수집정보의 국내 이전,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해외판매망 구축, 국내법인의 기술인력 협력 등이다.

이렇게 미국 현지법인에서 새로운 신기술개발에 주력하여 선전하고 있을 때 국내 경기도 이천공장에서는 1983년 11월 훈련원을 시작으로 정보기기공장, 산기통신기기공장, 반도체 1·2공장, 반도체 조립공장, 금형공장등이 차례로 완공되어 86년 10월에 드디어 현대전자가 제1단계의 종합준공을 하게 되었다.

현대전자는 반도체생산외에 카오디오 자체개발과 생산, 위성방송수신기(TVRO) · 저잡음 증폭기(LNA) · 키폰, 무선전화기 등을 개발,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 수출이 잇따르면서 초창기 경영수지 개선에 많은 보탬이 됐으며, 전자부문에서 '현대'의 기술

력을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98년 IMF체제라는 경영악화속에서도 매출 4조4,175억원의 달성과 창립당시 500명의 직원과 자본금 100억원으로 출발해 '98년 당시 총자산 12조

5,178억원의 세계적 반도체전문업체로 정상에

우뚝 서게 된 것은 현대전자의 끊임없는

연구와 신기술개발 그리고 지속적

인 기술혁신에 경영진은

물론 전직원에 이르

기까지 혼신의 노력

을 기울여 왔기 때

문이다.

이러한 결과, 현대

전자와 LG반도체와의

역사적인 통합법인 출범

에 있어서도 ADL사로부터 경

영능력과 기술력, 마케팅력 등에서 객관적 우위와 경쟁력을 인정받아 경영주체로 최종 선정받게 된 것이다.

또한 이로써 국내 · 외적으로 반도체업체로서는 제일의 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 '디지털 경영'으로 세계 초우량기업 도약

현대전자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린 경영전략 워크샵에서 중장기사업 비전과 지난해말 부채비율 1백40%대 달성 등 재무구조의 대폭 개선을 통한 성공적인 경영혁신을 바탕으로 매출 11조원, 투자 2조5천억원 규모의 2000년도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워크샵에서 정몽헌 회장은 '디지털 혁명의 급속한 경영환경 변화속에서 반도체 등 사업부문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디지털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또, 정몽헌 회장은 '디지털화를 근간으로 하는 지식 경영의 기반을 구축하여 가치 창출의 극대화 및 C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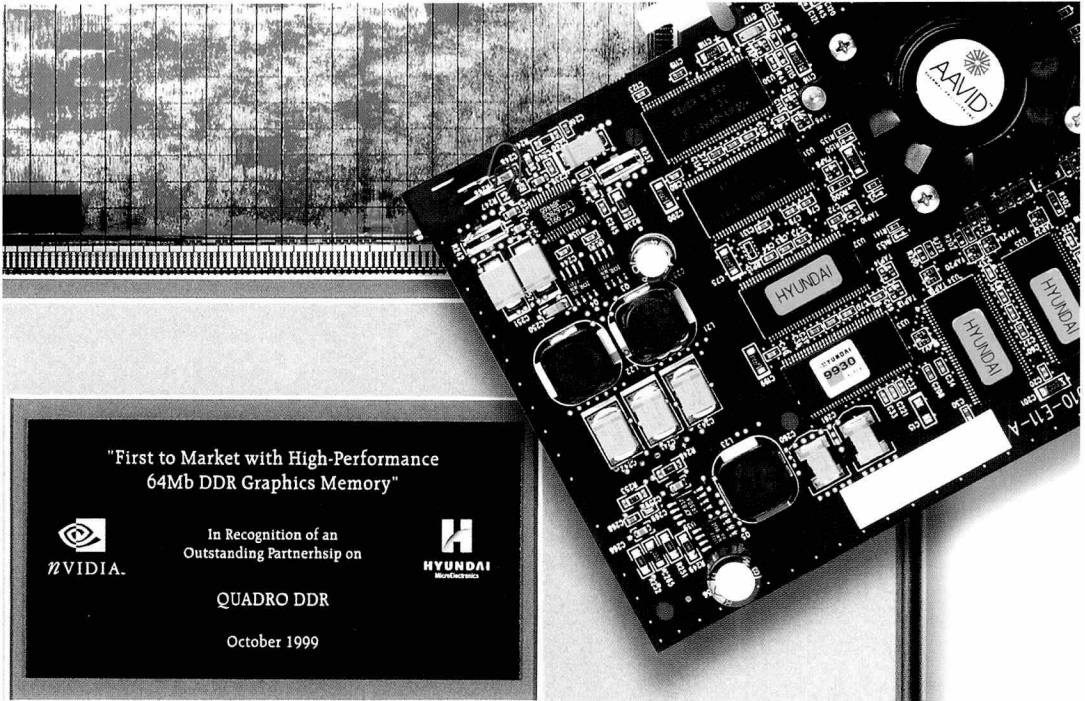


의 극소화를 통해 「고객에게는 최고의 만족을, 주주에게는 최대의 이익을, 종업원에게는 최상의 행복을 창출」해주는 세계 제일의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전임 직원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전자는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억원보다 약 90%증가가 예상되며, 경상이익 또한 지난해 '99년의 2천억원 수준보다 약 5배 이상 증가한 1조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현대전자는 LG반도체와의 통합법인 출발 이후 임원 인사의 단행에서부터 혁신적인 경영 체질개



▲ 현대전자가 세계 최초로 독점 공급하는 64메가 DDR싱크로너스 D램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경영혁신, 지식경영, 유연성, 세계화의 4대 비전을 제시하고, IT-비즈니스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영업력 확보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1위 등 각 사업부문별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이를 통해서 현대전자는 오는 2003년에는 매출규모가 22조원에 달하는 세계 초우량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 '99년 매출액 5조9천

원으로 올해를 기점으로 디지털 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신념의 의지가 확고하다.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제품에 대해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겠다는 다부진 신념, 그리고 임직원에게는 최상의 행복을 창출해 주겠다는 의지가 다른 어느 기업보다도 강력하기에 현대전자는 '세계 제일의 반도체회사'로 자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새천년에도 현대전자의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